

北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실제 관심

신형 지대지 미사일 '화성-12' 14일 발사...ICBM급 추정 엔진 4개 합치면 미국 본토까지

북한은 15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형중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밝혀 그 실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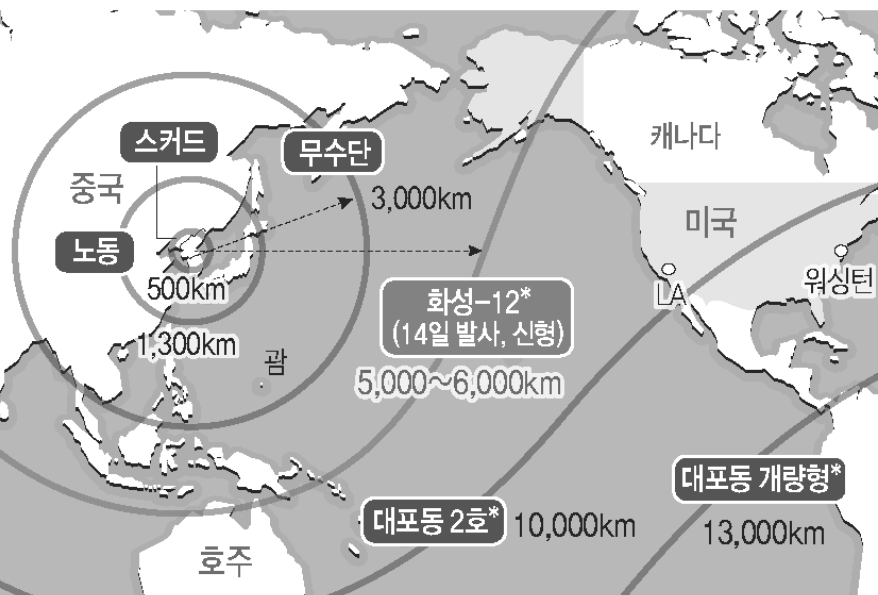
북한은 이 미사일이 '새형(신형)'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성-12' 형으로 명명해 그간 발사했던 무수단(화성-10)이나 '북극성 2형'과는 다른 형태임을 말해왔다.

실제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열병식 때 공개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추정 탄도미사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단 한 차례 공개했다. 이번에 단번에 발사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들어 잇달아 시험발사에 실패했던 미사일이 이 기종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무수단 미사일(화성-10)도 작년에 7번이나 발사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이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 탑재 차량에 실려 있었지만, 탄두 부분이 뾰족한 형태여서 무수단과는 탄두가 다른 모양이었다. 미사일 동체는 KN-08과 유사했다. 이 때문에 이 미사일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수단 확장형

북한 주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시험발사 (사거리는 추정), 외 작전 배치됨

연말뉴스

또는 KN-08 개량형으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 또는 확장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공개된 미사일 동체는 'x01010704', 'x12121701'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동체에는 'x11831851'이 씌어있다. 'x'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을 의미하며 숫자는 미사일 생산 공장, 운용부대 등의 정보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화성-12'형은 동체 하단부에 격자형 보조 날개(GRID FIN)를 달지 않고도 자세 제어가 이뤄졌다. 관련 기술이 진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차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은 이런 보조 날개를 달았다.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1t가량으로 추정됐다. 미사일 엔진은 지난 3월 18일 시험한 액체연료의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한 이 엔진은 주엔진 1개에 보조엔진 4개를 달아 추진력을 극대화한 형태로 개발됐다. 이번 발사한 미사일도 주엔진 1개와 보조엔진 4개에서 강한 화염이 나오는 것이 식별됐다. 이 엔진은 작년 9월 20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추력 발동기'와 유사했다.

당시 북한은 엔진 추진력이 80t(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측정됐고 연소 시간은 200초라고 주장했다. ICBM 엔진은 보통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180~300초 동안 연소 작용을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력 80t의 엔진 4개를 묶어 ICBM 1단 추진체를 만들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근 교수는 "지난 3월 시험한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고, 탄두중량은 1t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전날 공개한 시험 발사 데이터를 보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ICBM급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해 거리 787km 목표수역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액체 엔진을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7000km 내외의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목표로 한 새로운 ICBM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수나라의 반신 양현감

양현감(楊玄感, ?~613)은 수나라 중신 양소의 아들로 흥농 화음 출신이다. 부친 덕에 중신이 되었으나 후일 양제에게 반기를 들어 거사했다.

그는 권신인 부친의 군공으로 주국이 되었다. 606년 부친이 죽자 그의 직위인 월국공을 이어받았고 예부상서로 발탁되었다. 어릴적에 명칭한 모습과 있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였는데 그때마다 양소가 그렇지 않음을 변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성해서는 문학과 독서를 즐겨 많은 문사들과 친교를 맺었다.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뛰어나 문무겸전했다는 평을 들었다. 양소는 문제의 차남인 양제가 형 양용을 대신해 황태자가 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문제가 말년에

인물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반을 결정하자 이밀과 상의했다. 이밀은 세가지 계책을 건의했다. 첫째, 요동에 가 있는 양제의 배후를 찌를 것. 둘째, 수도 장안을 공략할 것. 셋째, 준수도인 낙양을 칠 것. 그는 낙양을 공격하는 세 번째 안을 채택했다. 양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고 수나라 군대가 강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장안 역시 너무 멀어 공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왕에 가까운 낙양을 공격했지만 수군의 방비가 예상외로 강해 함락시킬 수 없었다. 장안을 공격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꾸었지만 그사 이 양제가 보낸 우문술과 내호아 등의 수군에게 격파되었다.

보급 물자 책임자인 양현감의 직계 부하는 운반부와 선원뿐이었다. 모병

10만 대군 반란 실패...비참한 최후

양제를 폐하고 형을 다시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알아채고 황제를 시해하였다. 이에 따라 양제 정권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양제에 대해 양제와 평행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606년 병사했지만 독살설이 제기되었다.

이런 연유로 양제에 대해서는 충성심이 적었고 은근히 경멸하는 듯한 기미를 보였다. 양제가 1, 2차 고구려 정벌을 감행할 때 하늘의 여왕에서 물자 운송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으나 고의로 수송을 지연시켜 전선을 곤란에 몰아넣었다. 양제를 일으킨 연유에 관해서는 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양소는 자신의 공적을 믿고 오만하였으므로 양제에 대해 신하의 예를 잃은 적도 있었다. 황제는 양소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다. 양소가 죽은 이후로 양현감은 일족이 살해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동생들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

고구려 정벌로 양제가 멀리 요동에 나가 있어 장안이 비었고 천하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노려 왕조 타도의 기회를 내걸은 것이다. 반란 결심에는 친구인 이밀의 영향이 컸다. 이밀은 북주 팔주국의 일원인 이밀의 손자로 가문의 격이 높았다. 그는 관직에는 나가지 않고 독서와 문학으로 소일했다. 생전에 양소는 이밀을 높이 평해 아들들에게 "너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에 응한 젊은이까지 합쳐 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담해 10만의 대군이 되었다. 낙양 공격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낙양 유수인 반자가 완강히 버텼기 때문이다. 양제의 대응도 생각보다 훨씬 신속했기 때문이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그는 낙양 공략에 성공할 수 없었다. 만약 반자가 항복해 낙양을 접수할 수 있었다면 수왕조는 멸망하고 새 왕조를 창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안에서 위문승이 낙양을 구하러 왔고 요동 원정군도 되돌아왔다. 10만의 대군이 급속히 줄어들어 수백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동생 양적선에게 "차욕은 받기 싫다. 한 칼에 베어달라"고 부탁해 죽임을 당했다. 그의 머리는 양제가 머무는 곳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사체는 낙양 시내에 전사된 후 토막토막 잘라져 불태워졌다. 양제는 "현감이 한번 부르면 따르는 자가 10만이나 되었다. 모두 주살하지 않으면 후일 이를 응징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살해된 자가 3만 여명, 유배된 자가 6000명이 되었다. 양현감이 낙양을 포위했을 때 곡물창고를 열어 나누어 주었는데 쌀을 받은 사람은 모두 낙양 남쪽에 생매장되었다. 양현감의 반란으로 천하의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5년 뒤인 618년 양제는 강도에서 시해되고 수왕조는 멸망했다.



히잡 쓴 선거 출마자 이란 대통령 선거(19일)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14일(현지시간) 이란 바라민 시의 변화가에서 한 남성 이 지방선거 여성 출마자의 선거 홍보물을 찍고 있다. 이란 대선과 같은 날인 19일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대선에서 연임을 노린다.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팬션부지

- 여주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